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미얀마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20년6월26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677천 km ² 	인구 54.1백만명 (2019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810억 달러 (2019 ^e) 	1인당GDP 1,499달러 (2019 ^e) 	통화단위 Kyat(KT) 	환율(U\$기준) 1,522.43 (2019년 평균) 

-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인도, 중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승리하며 역사상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섰음.
- 현 정부는 군부가 여전히 입법·행정·국방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상황에서도, 뿌리 깊게 존재해 온 소수민족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오랜 군부 독재 기간 중 외면되었던 국민 생활수준의 개선을 위해 대규모 전력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근 국가 대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섬유 봉제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세계 최하위권 수준의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5. 5. 16 수교 (북한과는 1975. 5. 16 수교, 1983. 11 단교 후 2007. 4 복교)

주요협정 무역협정('67), 항공운수협정('78), 이중과세방지협정('03), 사증면제협정('1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협정('93), 무상원조협정('13), 투자보장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573,174	534,059	631,596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의류, 편직물
수 입	463,336	536,583	595,191	의류, 신변잡화, 농산가공품,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19년말 누계, 총투자기준) 456건, 3,608,11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7.5	6.4	5.8	6.4	6.5
소비자물가상승률	8.7	6.9	4.6	6.9	8.8
재정수지/GDP	-3.0	-3.2	-4.1	-4.2	-6.9

자료: IMF, EIU

2019년 경제성장률은 평년 수준에 못 미칠 전망

- 미얀마 경제는 2018년 농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전년(5.8%)대비 상승한 6.4%를 기록 하였음. 2019년에는 부동산 가격 조정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2020년 11월 총선 관련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6.5%를 기록, 최근 5년치 평균수준(6.9%)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의 부동산 시장은 2011년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부동산의 공급 부족, 과도한 경제성장 기대로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경제성장의 한 축인 총투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대비 30%를 상회하였고, 2019년에는 GDP 대비 33.7%를 기록하여 전년(34.4%)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열악한 미얀마의 인프라 수준을 감안 시 총투자는 향후에도 미얀마의 경제성장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대폭 하향 이후 반등 전망

- IMF 등은 최근 수정된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교역 위축 등을 근거로 2020년의 미얀마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여 2011년 개혁.개방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 다만,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여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각 기관별 미얀마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구분	IMF	세계은행	ADB	EIU
2020년	1.8	1.5	1.8	3.0
2021년	7.5	6.0	6.0	6.8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내경제

전기료 인상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2018년 이후의 소비자물가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식음료 가격 상승과 2019년 7월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급등 추세를 보였음.
- 2013년 11월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적인 반발로 5년여 기간 동안 시행이 보류되었던 동 조치는 전기요금 구간을 기존 3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요금을 가정용은 40~200%, 상업·산업용은 20~7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2019년 말 기준 전력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50%에 불과한 상황임. 한편, 전기요금 자체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저렴하며,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향후 예정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으므로 최근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지속되기 어려워 보이며, 2020년 초의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공급 측면의 상승 압박 역시 줄어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됨.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반감 우려

- 미얀마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이후 총 3회, 300bp의 금리 인하(기존 10%→7%)를 단행하였음. 동 조치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3년 7월 이후 최초의 금리 인하로,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열악한 금융시장 여건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차단하고, 중앙은행이 과거 재무부 산하기관일 당시부터 재정적자를 통화 증발을 통해 보전해 왔던 이력과 최근의 더딘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를 낮춰, 통화정책의 효과가 예상에 못 미칠 우려가 있음.

재정수지 적자 대폭 확대 예상

- 최근 정부의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GDP 대비 -6.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4월 미얀마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책(Covid-19 Economic Relief Plan)에는 거시경제 안정, 민간 부문으로의 영향 축소, 노동자 및 가계 지원 등 7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약 7,200만 달러 규모의 1년 만기 운영자금 지원, 시중은행 금리 캡 인하(3%p) 등의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임.
- 6월 23일 기준 미얀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는 각각 290명, 6명으로 확산 규모 자체는 적은 편이나, 의료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음.
- EIU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GDP의 -5.7%, -5.6% 수준을 기록하며 점차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2,838	-1,776	-4,504	-2,137	-2,589
경상수지/GDP	-4.5	-2.8	-6.7	-2.9	-3.2
상 품 수 지	-3,815	-3,578	-5,767	-4,335	-4,764
상 품 수 출	9,957	9,235	9,811	11,076	11,448
상 품 수 입	13,772	12,812	15,577	15,410	16,212
외 환 보 유 액	4,348	4,616	4,910	5,347	5,468
총 외 채	9,529	12,271	17,700	19,570	18,950
총외채잔액/GDP	15.2	19.0	26.4	26.9	23.4
D.S.R.	3.9	4.4	4.4	5.3	5.1

자료: IMF, EIU, OECD

경상수지는 2018년 개선되었으나 이후 적자 확대 전망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38%), 식음료(28%), 석유 및 연료(22%) 순이며, 수입품은 기계류(27%), 공산품(22%), 석유류(21%), 식음료(9%) 순임. 중국 등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임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봉제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여 상품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 수출 및 관광객 방문 증가 및 상품수입 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6.7%) 대비 크게 개선된 -2.9%를 기록하였음.
- 2019년에는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한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봉제공장 폐업이 늘고, 관광객 방문도 급감하면서 다시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GDP 대비 -3.2%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 및 미얀마의 열악한 보건·위생 상황을 감안 시 관광객 회복세는 더딜 전망이다. 호텔관광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현지 중소 관광업체의 운영 악화로 30%는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IU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2020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5.8%를 기록하고 그 다음해 -3%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한편, IMF가 6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교역 및 이동 봉쇄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세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수출 관련 전망치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추가 확충 및 모니터링 필요

- 외환보유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54.7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음. EIU에 따르면 증가세가 이어져 2021년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 비중*은 2019년 44.6% 수준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최근 40% 수준을 유지 중이며, 2019년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8개월 수준으로 IMF 등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준인 3개월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 46.7('17) → 43.4('18) → 44.6('19)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 2.7('17) → 2.9('18) → 2.8('19)

외채비중은 경제규모 대비 양호한 편이나 지속적 관리 필요

- 총외채잔액은 2018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2019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189.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GDP 대비 비중도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23.4%를 기록하였고, 총수출 대비 107.0%로 양호한 수준임. 한편, 2020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가 외채 관련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쳐 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함.

* 총외채잔액/GDP(%) : 26.4('17) → 26.9('18) → 23.4('19)

** 총외채잔액/총수출(%) : 119.3('17) → 114.4('18) → 107.0('19)

구조적취약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봉제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노출

- 미얀마는 2011년 개혁·개방 이후 산업 발달에 필요한 자본과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집약도와 노동 숙련도가 요구되는 임가공 위주의 봉제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노사갈등 등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음.
- UNCTAD에 따르면 2018년 미얀마의 섬유류 수출 상위국가는 일본(26.4%), 독일(10.1%), 영국(9.0%), 한국(8.4%) 순으로 다변화된 편이나, 수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79.8%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 경로가 쏠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봉쇄정책 실시로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까지 겹치며 즉각적인 타격을 받아 약 100여 개의 공장이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중이며, 총 20만 명의 봉제공장 노동자 중 2만여 명이 실직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과정에서 글로벌 의류 생산 브랜드들이 강압적으로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자들이 실직을 피해 무급휴직 중이더라도 이렇다 할 복지 대책은 없는 상황임.

제조업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하나 세계 최하위 수준의 기업경영여건 개선 난망

- 미얀마는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에서 190개국 중 165위를 기록하였음. ASEAN 회원국인 브루나이(66위), 캄보디아(144위), 라오스(154위)보다 낮고 인접한 방글라데시(168위)와 유사한 수준임.
- 건설허가(46위), 사업개시(70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문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나, 계약 실행(187위), 신용 획득(181위), 투자자 보호(176위)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기업경영여건이 열위한 상황임.
- 또한 군부의 영향력이 의회, 국방부 등에 여전히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 독재 시절의 권위주의적 업무처리 방식이 공무원 사회에 잔존하여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부패인식수준은 조사대상국 180국 중 130위로 부패 인식 수준이 낮음. 또한 공공서비스 이용자들 중 32%가 최근 1년간 뇌물을 지급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성장잠재력

인구구조와 낮은 임금수준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 가능성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얀마의 중위연령은 29.5세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6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5,659만 명임.
- 2019년 기준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8시간 기준 3.55달러로, 월급은 약 90달러 수준임. 월급 기준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이 약 250달러, 방글라데시가 약 105.7달러 수준임을 감안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정책성과

주요 정부정책 추진 성과 미흡

- 2018년 2월 미얀마 정부는 국민 화해, 거시경제 관리 강화, 고용창출 등 5대 목표 및 28대 전략 등을 포함한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10월 테인 세인 당시 대통령 주도로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전역에서 활동 중인 소수민족 반군과 전국적인 평화협정을 체결을 시도했지만 협상에 참여한 15개 반군 중 8개만 협정에 참여하였고,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이 2016년 집권한 이후 소수민족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2019년 이후 부터는 오히려 군부와 반군 간 긴장 국면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됨.
- 미얀마 투자청에 따르면 2018년 실제 FDI 규모는(승인액 기준) 당초 예상되었던 58억 달러보다 낮은 4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미얀마의 심각한 지역 갈등 및 로힝야 사태로 인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투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음.

단계적 전력공급 확대 프로젝트(National Electrification Project) 추진

- 미얀마 정부는 생활여건 개선 및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전화(electrification)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0년 말까지 55%, 2025년 말까지 75%, 2030년까지 100%의 전력 보급률 달성이 목표임.
- 세계은행(4억 달러) 및 JICA, ADB 등으로부터 총 6.2억 달러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동 프로젝트는 2020년 1월 기준 약 50.6%의 보급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됨. 2020년 9월 이후 2단계 사업(Phase 2)가 추진될 예정임.

정치동향

오랜 군부독재 이후 문민정부 수립

- 1948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이어져 왔으나 1962년 군부의 쿠데타로 군사독재가 시작되어 48년간 지속되었으며, 2010년 군부의 정권 이양과 함께 미얀마 연방 공화국이 선포되었음.
- 이후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5년간 집권하였으며, 2015년 총선에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동맹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상·하원에서 각각 6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며 미얀마 역사상 최초의 문민정부가 비로소 수립되었음.

정치적 개혁 시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

- 2008년 군사정권 당시 제정된 헌법은 군부에 상·하원의원의 25%씩을 할당하고, 국방, 내무장관 등 주요 내각에 대한 임명권을 군 최고사령관에 부여하고 있어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며, 문민정부가 각종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헌법에서는 전체 의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 의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군부의 승인이 없이는 구조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함.
- 2020년 3월 군부 지명 국회의원 비중의 단계적 축소(현행 25% → 2030년 5%), 군 총사령관의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장관 임명권 박탈,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대통령 취임 불가 조항(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을 겨냥한 독소조항) 삭제 등 군부의 영향력 축소가 명시된 개헌안은 예상대로 부결되었음.
- 군부 스스로의 정치퇴진 의사가 없는 이상 개헌은 요원하며,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나아가 문민정부의 역량 부족, 중국 접경 지역의 안보 문제, 소수민족 무장반군의 위협 등 최근의 동향을 감안 시 군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 총선에서 정치적 안정성 유지 전망

- 2020년 11월 총선에서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지표 회복, 소수민족과의 관계 개선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나,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의 NLD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이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만 75세)의 후계 구도가 불명확한 점은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음.

사회동향

뿌리 깊은 민족 갈등으로 사회 불안이 심각한 상황

- 미얀마는 불교계 버마족(68%)과 토착 및 외국계 소수민족(32%) 등 135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임. 다양한 민족 간의 세력 다툼은 1886년 영국의 식민지로 편입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으나, 영국 식민지 기간 중 주요 지배 전략 중 하나였던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갈등이 증폭되었음.
- 독립 이후 군부독재 기간 중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정부 군·경과 반군, 반군과 반군 간 무력 분쟁이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2018년 기준 총 2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난민도 100만 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대표적인 유혈 사태로 2017년 8월의 로힝야족 반군에 대한 미얀마 군·경의 대규모 토벌 작전이 인종 청소로 변질된 사례를 들 수 있음.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70여만 명의 난민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이후 현재까지도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현 정부가 내세웠던 국민 화해라는 목표와 현실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임.

복잡한 정치구조가 얽혀 소수민족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

- 국민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배려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필수적이거나,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절대 다수인 불교도(전체 인구의 88%) 및 버마족(68%)에겐 관련 방안이 또다른 형태의 역차별로 받아들여져 현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개혁의 폭이 상당히 좁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상황에서 소수민족 반군에 대한 유화적인 움직임은 군부 세력을 역으로 자극하여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로힝야 사태 관련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무대응 또는 군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유지해 온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의 태도는 이러한 국내 정치 지형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국제관계

로힝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 지속

- 로힝야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UN 진상조사단은 2018년 8월 최종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인종 청소 의도를 품고 대량학살 및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였고, UN 인권이사회(UNHCR)는 관련 군인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켜 미얀마 정부를 압박해 왔음.
- 한편, 2018년 12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방글라데시 등에 피신 중인 난민 70여만 명의 송환 일정 확정 및 충분한 진전이 없을 경우 경제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국제관계

국제적인 압박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부재

-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무슬림계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2019년 11월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음.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20년 1월 미얀마 정부에 대해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은 낮음.
- 2020년 4월 미얀마 정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제노사이드(인종학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저지르지 말라는 조치를 취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을 해결할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 또는 진전이 없다는 국제적인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중국과의 협력 확대

- 2020년 1월 미얀마 제1의 교역국*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경제 분야 위주로 총 33건의 합의가 도출되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양국간 핵심 협력사업인 13억 달러 규모 짜육류 심해항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일대일로 사업의 한 축인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이 구축될 전망이다.
 - 중국은 1월 국빈방문을 통해 최근 추진력이 떨어지던 일대일로 사업의 기반을 다시 다지면서, 낙후된 중국 서부 지역 개발 및 에너지원의 안전한 공급로 확보를 동시에 꾀하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미얀마는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로힝야 사태로 인한 국제적인 고립을 해소하고, 막대한 개발 수요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현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임.
- * UNCTA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얀마의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각각 전체의 33.4%, 3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채상환태도

과거 파리클럽 채무탕감 경험 존재

-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99억 달러 중 56억 달러(56.3%)를 탕감하고, 43억 달러(43.7%)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채무탕감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56억 달러 중 14억 달러(25%)가 즉시 탕감되었고, 나머지 42억 달러(75%)는 2014년 3월말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고 확충 등이 목표로 설정된 IMF 프로그램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뒤 탕감되었음.

최근 연체 기록 없으며 기존 연체금 상환은 안정적

- 2020년 3월 31일 기준, 미얀마의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951.9백만 달러(단기 102.5백만 달러, 중장기 849.4백만 달러) 중 703.3백만 달러를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연체비율이 73.9%로 높은 편이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연체는 없으며, 장기연체는 모두 채무재조정 기산일(2012년 12월 31일) 이전 채무에 대한 연체임. 또한 현재 연체에 대한 연체배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 연체배상금 추이(백만 달러) : 874.2('18.3월) → 780.4('19.3월) → 703.3('20.3월)
- 또한 재조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연체금을 상환 중이며, 2020년 3월말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상환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2 (2020.06)	D2 (2019.07)
OECD	6등급(2020.06)	6등급 (2019.06)

OECD는 미얀마에 대해 6등급 유지

- OECD는 높은 경제성장률, 정치 민주화 등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미얀마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6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유지 중임.
-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20년 6월 현재 미얀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미얀마는 경제는 2019년에 부동산 가격 조정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2020년 11월 총선 관련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투자 위축,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양호한 편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쌍둥이 적자 누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정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보하여 외채 지급능력을 개선시킬 것이 요구됨.
- 현 정부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 구조 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 사태도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 정부 들어 기업경영 여건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군부독재 시절 외면되었던 민생경제 여건 개선을 위한 전력보급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고무적임.
-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얀마의 신용등급을 기존 등급과 동일한 D2로 평가하고자 함. 향후 기업 경영 및 투자 여건 개선, 군부의 영향력 축소 및 소수민족과의 갈등 해소 여부가 미얀마의 경제성장과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